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문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지부장	조정훈	010-9833-7169
		부지부장	류밀희	010-9215-4229
			고광현	010-9149-2465
메일	tbsunion@naver.com		누리집	mediauniontbs.or.kr

교육방송 개편 반대 기자회견 개최

- 오세훈 후보, 지난 13일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는 구상 밝혀
 - 오 후보 “TB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져”
 -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부터 줄곧 ‘TBS 개혁’ 의지 밝혀
 - 정치적 편향성 지적하며 예산 삭감한데 이어 개편 가능성 시사
- ‘사실상 시사·보도 기능 없애려는 것’이란 해석 나와
 - 조합원 포함한 TBS 구성원들의 반발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 받아쳐
- 교육방송으로 개편 시 ‘방송법 제4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이 바뀔 수밖에 없어 사실상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
- 언론노조 TBS지부 “예산 삭감에 이어 또 다른 오세훈식 언론 장악”
- 5월 26일(목)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앞 기자회견 개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교육방송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시민들이 TB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는 이유이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시사·보도 기능을 없애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해를 넘기지도 않은 채 출연금 삭감이라는 현실로 드러났다.

작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TBS가 정도(正道)를 걷는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지난 14일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TBS는 특정집단을 위한 정치적 선전도구가 돼버린 지 오래다”라며 “정치 편향 방송을 지속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송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기간부터 현재까지 오세훈 후보가 TBS에 대해 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시사·보도 기능을 손봐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우리 노조를 포함해 TBS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현재 TBS는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각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1990년 FM라디오 개국 이후 외국어 라디오 채널인 eFM과 TV까지 총 3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독자적인 콘텐츠도 제공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수도권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진행자로 나서 동네 소식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우리동네 라디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민영상 특이점>

등의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공부방 콘셉트의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시민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 사고로 풀어내는 <신박한 벙커> 등의 프로그램은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고 있는 등 이미 TBS의 기능은 오래전에 다각화됐지만, 오세훈 후보는 TBS가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다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의 교육방송으로의 개편 구상에 TBS 내부에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세훈 후보는 지난 18일,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성명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TBS의 기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TBS와 관련된 조례까지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TBS 구성원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편성과 제작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방송법 제 4조 2항이 금지하는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상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붙임 1. 기자회견문

<‘TBS 교육방송 전환’은 언론 장악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6월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의회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우리 노조는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123억 예산 삭감에 이은 ‘또 다른 오세훈식 언론장악’이라고 본다.

TBS는 과거 서울시 사업소 시절의 ‘교통방송’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에 부흥하며 시민의 방송으로 그 기능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는 이를 사실상 무시한 채,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기 위해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관련 조례까지 고칠 것을 시사했다.

오세훈 후보가 밝힌 구상처럼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한다면 방송법 제 4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으로도 볼 수 있다.

오세훈 후보는 TBS 구성원들의 우려에 너무 걱정이 앞서는 오해라고 하지만 그동안 오세훈 후보 측에서 보여준 언행은 오해와 걱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 6천명의 이름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TBS 개편 구상,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언론인을 도둑이라 한 오세훈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2022년 05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